

## 군마행군길에서 하신 당부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백두산에로의 력사적인 군마행군길을 이어가시던 때에 있던 일이다.

하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성지의 흰눈을 맞으시며 울창한 수림속에 수북이 쌓이는 솟눈우에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겨울철에 많이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백두산의 겨울은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엄혹한것으로 하여 이 계절의 답사는 하기 힘든것으로 생각한 그들이였던것이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좋은 계절에 하는 혁명전적지답사는 들놀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솟눈우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속에 백두산에 올라보지 못하고 백두의 칼바람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결코 안온한 서재나 교실에서 말이나 글로써 새기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전통이 마련된 백두대지를 밟아보고 사나운 겨울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아보아야 체득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천만인민모두를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쏘아박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계 준비시키고 이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시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은 오늘도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높뛰게 하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